

하루를 시작하며



김인 시인

매일 SNS에서 과거의 오늘을 알려 준다. 일년 전 이맘때쯤엔 몽골에 있었다. 두 번째 몽골여행이었다. 몽골 동부를 하루에 열 시간씩 달려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인 다달로 향했다. 가는 길 끝도 없이 펼쳐진 에델바이스와 영경귀 꽃을 바라보고 밤이면 흐르는 은하수를 보며 술 한 잔을 기울이곤 했다. 미처 몰랐었다.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일 년 뒤의 세상을 여행의 의미와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일 년에 한두 번 떠나는 여행은 쉽사리 힐링이고 충전의 역할을 해

지금, 우리에게 여행이란

왔다. 누군가에게는 휴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탐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는 것, 그것이 여행이다. 나에게 여행은 그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낯익은 것들을 그리고 떠난 곳의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돌아갈 곳에서의 힘을 낫선 땅의 흙에서부터 얻는 것이었다. 세계는 거대한 책과 같았고 아직 펼쳐보지 못한 책들에 대한 갈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의 활력이 됐다. 그런데 떠나지 못한 날들이 쌓여가고 떠나지 못할 것 같은 날들이 그려진다.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에도 조심스런 날들이 이어졌다. 평범했던 일상의 모습은 바이러스의 출몰로 뒤바뀌었다. 정치, 경제를 떠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지울 수 없는 생체기를 남기고 있다. 공동의 삶은 개개인으로 흩어졌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은 비대

면으로 대체됐다. 모든 행동방향이 '집 안에서'로 바뀌며 문화예술도 온라인으로 파고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자유롭게 집 밖을 오가고 하늘 길을 오갔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날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고 싶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가장 일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기에 '여행'에 대한 갈망은 더욱 증폭됐다. 그러면서 예전엔 해외여행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국내 여행자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익숙하다해 당연히 여겼던 풍경들이 고개를 들어 천천히 바라보이게 되어 눈이 보이는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의 새로운 시발점이 시작되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는 국내 여행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확진사례가 미미하고 청정자연과 이국적인 정취까지 느낄 수 있어 제주도는 다시 여행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에는 여전히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기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안전과 방역수칙을 구축하고 있으나 코로나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우려를 온전히 떨쳐내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여행은 가장 절박한 분출구이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여행의 방식은 예전과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해방감에 앞서 휴식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행은 결국 지난 발자국을 바탕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평범한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행을 응원하며 함께 무사히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건너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열린마당

'여름용 마스크'도 '의약외품' 확인하세요



유창수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얼마전 '가짜 마스크' 판매 소동이 일어났다. 공적(보건용) 마스크 수급은 안정화됐지만 소비자는 공적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고 통기성이 좋은 여름용 마스크(일명 텐탈마스크)를 선호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다. 그러다 보니 검증이 안된 공산품 마스크가 유통 판매되는 것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약국, 편의점,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대다수의 텐탈마스크는 무늬만 텐탈마스크 형태일 뿐 비말 차단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텐탈 일회용 마스크' '텐탈3중 필터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비말 차단 마스크' 등으로 표시해 판매하

지만 대부분 공산품 마스크로 확인됐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된 마스크를 사려면 '의약외품'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 마스크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할 수 없는데, 어느정도 비말 차단효과는 있으므로 안쓰는 것보다 쓰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나 장시간 입과 피부에 닿기 때문에 재질이 안전하지, 피부 트러블은 없는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KF마스크는 식약처가 인증한 공인 필터(Korea Filter)의 출입말로 미세먼지, 바이러스 차단율은 높지만 산소 투과율이 낮아 더위에 호흡이 답답해지는 단점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와 대화(회의)때나 대중교통 이용 때는 사용을 권장한다. 텐탈마스크는 일명 수술용마스크라고도 한다. 비말감염이 차단되고 호흡이 용이하지만 미세먼지 등 작은 입자 차단력은 높지 않다. 그래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약외품'이 표시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김태석 의장, 대권행보 비판 ○...30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친 김태석 의장이 최근 가속화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행보에 일침. 김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제주도에서 제주 현안을 다루고 모자랄 판에 이견 아니다"라고 언급. 특히 김 의장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나"라면서 "한마리라도 잘 키워서 풍요롭게 만들어야한다. 그럼 토끼 주인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뼈(?)있는 조언. 오은지기자 선상남시 불법행위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간에 갈치·한치를 잡기 위한 선상남시 수오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조치를 천명. 시는 이달 20일까지 관내 낚시어

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영업이 성행하는 도두항과 한경면 고산 자구내포구를 중심으로 점검. 시 관계자는 "안전운행 준수 여부, 무허가 영업, 구명복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선실 등에선 코로나19 예방 지침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제주외고 사전 여론조사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동지역 이전 후 일반고 전환' 혹은 '원래 부지에서 일반고로 전환' 할 지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가 시작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 제주도교육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도민 1600명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발표. 여론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전문가 토론회 ▷도민참여단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하순쯤 '정책권 고안'을 작성해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 송은범기자

사설

市長 인사에 원 지사의 도덕 수준 달렸다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이끄는 "읍·군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넘어 갔습니다. 문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예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입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 결과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비록 행정시장이 초라해졌지만 자치권이 있던 시절보다 규모는 훨씬 커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시장'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과거 읍·군장 전격 등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3선 의원과 정무부지사 등을 거쳐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서귀포시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읍·군장 전격 등을 비롯 건물 임대소득 지연 신고, 불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특

위는 "읍·군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넘어 갔습니다. 문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예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입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 결과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비록 행정시장이 초라해졌지만 자치권이 있던 시절보다 규모는 훨씬 커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시장'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과거 읍·군장 전격 등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3선 의원과 정무부지사 등을 거쳐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서귀포시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읍·군장 전격 등을 비롯 건물 임대소득 지연 신고, 불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특

최악으로 치닫는 제주경제, '시간이 없다'

제주경제가 울어들어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 피해 중 가장 심각해 충격입니다. 관광지 특성상 관광서비스업과 내수판매업 등 분야에 일정부분 경기위축은 예상했지만 전국 최고에서 최저 성장률로 추락할 정도일 줄은 예측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현 위기의 중장기화 가능성까지 본다면 제주경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를 비롯해 제주상공회의소 도관광협회 제주경제자총협회 등 모든 경제단체들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당위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지난 29일 낸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 수호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1위)을 보였던 제주의 서비스업생산과 도소매 판매액 모두 올 1분기들어 17위로 추락, 전국 최저 성장률을 기록

했습니다. 광공업생산 건설수주 고용용하락 등 경제지표도 작년보다 더 떨어져 바닥권이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지자체중 '꼴찌' 수준입니다. 제주경제는 앞으로가 더 위기는 지척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 경제 침체 및 외국인 관광객 제주 유입 지연 가능성 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와 경제·관광단체들은 조기에 세밀한 경제회생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청정제주 유지를 통한 관광 활성화 집중, 중앙정부의 특별할인행사로 1600여억원대 할인 소비쿠폰 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적극 활용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시간)'입니다. 민·관이 제주경제 회생에 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고 전병화(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어머니 제주고씨 방자(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30일 04시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7월 1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7월 2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상가리 공동묘지 아 들 전 병 화 며느리 정 미 응 명 천 선 고 복 신 명 명 정 회 최 내 영 딸 전 정 회 사 위 김 상 철 영 명 회 추 연 응 손 자 전 연 상 손 서 김 창 수 손 녀 전 소 우 정 명 회 원 * 연락처 : 전병화 010-8863-9342 전병선 010-3699-8622 전병선 010-6788-8622 전은희 010-2181-8660 전영희 010-5146-1348 최내영 010-6661-3715

부고 이무록(JDC 인사부장) 아버지 전의 이공 태훈(前 오현중학교 교장·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29일 21시 05분 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7월 1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7월 2일(목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해안동 가족선영 부 인 박 경 자 아 들 이 무 록 며느리 진 애 리 딸 이 성 은 사 위 정 제 교 주 영 송 성 현 * 연락처 : 박경자 010-7557-5846 이무록 010-4764-0915 진애리 010-7356-0915 이성은 010-9655-0193 정제교 010-2462-0193 이주영 010-7480-5846 송성현 010-7480-584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곡산강씨 경순(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7월 1일 아 들 이 상 윤 며느리 오 연 주 딸 이 은 아 사 위 오 경 환 은 선 강 민 관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